



# 오클랜드

##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다윗 오일공-오파오-칠육삼팔  
 이범준 요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파구-삼삼일일

###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자) 사순 제5주일

2025년 4월 6일 (제2128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토/일(8am~4pm)

홈페이지: [WWW.OAKCC.ORG](http://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이사야 43,16-21

### 화답송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필리피 3,8-14

### 복음 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복음 요한 8,1-11

### 영성체송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성가]	8시	입당	226	봉헌	216	성체	187	파견	127
	11시	입당	121	봉헌	215	성체	169, 172	파견	127
사순 제5주일	4월 6일(주일)		4월 8일(화)	4월 9일(수)	4월 10일(목)	4월 11일(금)	4월 12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유인웅 다윗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사	장희숙 루시아	이은자 마트로나	사목회		
독서	김원덕 시몬 김영선 안젤라	이창용 레이몬드 이경란 베로니카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사목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이성연 베로니카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좋으신 주 하느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가련히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어, 우리 마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 2025년 사순시기 - 슬기롭고 영적인 사순시기 보내기

- ① 사순시기 동안 평일미사 참례하기
- ②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하기(목요일 저녁미사/주일미사 전)
- ③ 사순시기 성시간 참례하기(첫 목요일)
- ④ 사순시기 동안 매일 당일 매일미사 책 읽기
- ⑤ 삼중기도 매일 기도하기(기도표에 체크하기)

### ■ 부활 판공

- 부활 판공 성사는 매 미사 30분 전에 있습니다
- 부활 판공 외부 신부님 판공일 : 4월 13(일), 오전 10시부터
- 예수회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 ■ Rice Bowl

- 사순시기 희생과 보속의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Rice Bowl을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셨다가 부활절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 ■ 성지주일

- 4월 13일(일)은 성지주일입니다. 당일에 성당 뒤편에 성지를 하나씩 갖고 성당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 성지 작업은 4월 12일(토) 12:30부터 합니다.

### ■ 성삼일/부활절 안내

- \*주님 만찬 성 목요일 미사: 4월 17일, 오후 7시
- \*주님 수난 성금요일: 4월 18일 오후 7시  
십자가의 길: 당일 오후 3시
-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4월 19일, 오후 7시
-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 4월 20일, 오전8시/11시

### ■ 부활 맞이 대청소

- 4월 13일(일), 교중미사 후에 구역별 대청소가 있습니다.

### ■ 4월 12일 토요일 미사전례 - 사목회

### ■ 4월 성경 통독

- 콜로새 1,1-2,23

### ■ 성인 예비신자 교리

- 일시: 4월 10일(목), 저녁미사 후  
4월 15일(화), 저녁미사 후

### ■ 청년 예비신자교리 및 재교육

- 일시: 4월 6일(일), 대건관 4호
- 문영균 수사님

### ■ 유아세례 신청 받습니다

- 4월 13일 까지 사무실
- 세례식 : 4월 20일 부활 대축일 교중미사

### ■ 예비신자 세례식

- 4월 19일(토) 부활 밤 미사

■ 4/18(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루살렘성지복원기금을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 ■ 모임 및 회의

- 구역장회 : 4/6(일) 교육관 106호
- 사목회 : 4/6(일) 교육관 107호
- 알라메다 : 4/12(토) 오후 5:30, BB Bowl
- 샌리앤드로 : 4/13(일)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라모린다 : 4/13(일) 교육관 107호

### ■ 자동차 축복 예식

- 일시 : 4월 6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사제관 문 앞 성당 주차장

### ■ 밥나눔/ 반찬 나눔

- 오늘 미사 후에 성당 입구에서 70세 이상 신자 분에게 불고기와 양념고추절임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전 신자 분에게 두툽떡과 양념고추절임을 나눠드립니다.
- 사순시기 동안 밥나눔은 없습니다.
- 4월 27일(일)부터 밥나눔이 시작됩니다.

###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마리아,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정연중비오,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말찌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이은자마트로나, 김옥자마리아, 유낙양베로니카, 장민우, 이영아아나스타시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줄리울리안나, 조지현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조진행바실리오, 김혜숙아네스

### ■ 4월 매일미사책은 성주간이 포함되어 \$12입니다.

매일 미사책 구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 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 성당 내 안전 유의

-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⑤ 히터 사용 후에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 ■ 평일 성당 출입 안내

- 월요일~금요일 평일 낮에 성당 출입은 63가 게이트로 출입해주시길 바랍니다.

###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울리안나 (4/6)

\* 쟼마 (4/11)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 사순 5 주일

죄인은 다른 죄인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아니다.'고 죄인 사정은 죄인이 더 잘 알고 용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역시 선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높은 선을 가진 분은 죄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분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서의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가 죄수들을 시험하는데 한 청년을 간통한 남자로 꾸며 강력범들이 수감돼 있는 감방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감방 안의 모든 죄수들이 신이 나가시고 별의별 방법으로 그 청년을 괴롭혔습니다. 너같은 놈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면서 온갖 욕설과 비난을 하더랍니다. 자기들 안에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 청년을 역시 똑같은 죄목으로 위장을 해서 죄없이 억울하게 갇혀 있는 이들의 감방에 넣어 보냈더니 아무도 그 청년을 괴롭히지 않더랍니다. 누구도 청년의 죄를 따지거나 묻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방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친절하게 도와 주며 위로하더랍니다. 자기들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그와 비슷한 체질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생활 할 때도 보면 대개 졸병들에게 심하게 기합이나 주고 몰인정하게 다루는 것은 역시 사고자들이거나 말썽꾸러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문제를 참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더 짝어 누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늘 1독서는 바빌론의 유배생활을 끝낸 유대인들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겼으며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궁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해방이 되어 고국에 돌아간다 해도 희망이 없었으며 보이는 미래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심한 자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 "지나간 일을 생각지 말라."고 하시며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 두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느님은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들추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게 잊으십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쳐서 벌떡 일어서야 하며 또한 남의 잘못이 있으면 하느님의 애정으로 덮여 주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간음했던 여인은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인이 죄인을 더 비난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박해합니다.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간음한 여인의 죄도 큼니다. 벌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위험한 것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위선과 오만입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자기들 때에는 완벽한 모략을 꾸몄습니다. 거기에 간음했던 여인이 도구로 등장하는데 세상없는 예수님도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도록 그들은 예수님을 유도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은 자가당착이 되어 자기 모순을 범하게 되며 또 유대인에게는 사형선고의 권리가 없으므로 로마법에도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하신다면 이는 하느님의 율법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행위며 또한 음행을 장려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시 주님이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고 하시자 다 도망갑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자들이 비굴하게 내뺐니다. 왜냐하면 진짜 죄인은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간음했던 여인을 매장하려 했지만 그러나 망신을 당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죄인들입니다. 너나없이 용서받은 죄인들이며 또 앞으로도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나눌 수 있는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성서에 보면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야고2,13참조).

사순절은 서로 용서하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특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그 용서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아무에게도 돌을 던지지 맙시다. 그 누구에게도 죄인으로 몰아대지 맙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판단치 않으십니다. 자비를 가집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용서 받을 것입니다.

[가톨릭 신문]

###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b>미 사 시 간</b>	<b>8시</b>	<b>11시</b>	<b>총</b>
미사참례인원	45명	155명	200명

주일헌금		청년 영어미사	교무금	황금빛	감사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기타
8시	교중미사	3월29일							
[교무금]: 임윤택(3), 김영자(3), 이재우(3-4), 김원덕(4), 조진행(4), 정일환(1-3), 강수영(3), 팽현팔(1-3), 김학철(1-3), 박호영(4), 이순열(1-4), 천종욱(4), 조덕행(2-3)			본당 신부님	홍승천 최은하 송인숙	임윤택, 김영희 조용숙			신공진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4/6(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4/8(화)	연 최정자 켄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김영자 세실리아	장철호/ 송아네스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이경희 미카엘라	이요셉/ 마트로나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김원조 도미니코	이야고보/카타리나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김마르코	가족			
	연 최순일 요셉	순배 수산나	4/9(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박영자 클라라	이수나 유스티나		생 이미숙	이에스터
	연 김정희 올리엠타	가족		생 권영현 바실리오	이베로니카
	연 김재성 제이슨	김케넷가족			
	연 부홍신 마티아	부건화 요셉			
	연 이동춘 바오로	부건화 요셉			
	연 백상권 요한	송수산나	4/10(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백상권 요한	원켄마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나
	연 김영희 프란체스카	오준미 카타리나		연 한동철 안젤로	가족
	연 최재원 베드로	최명주 켄마		연 서정원 미카엘	유성규
	연 최상화 빈센치오	최명주 켄마		연 박명순 아가다	유성규
	연 이흥태 알비나	이에스터		연 최희영	최실비아
	연 연옥 영혼	이에스터		연 장예분	최실비아
	연 김희옥	이에스터			
4/6(일)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4/11(금)	생 조지현 안젤라	최영자 세레나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김영순 켄마	이에스터
	생 장민우	전데레사			
	생 장민우	익명			
	생 전데레사/알렉스가정	천다니엘			
	생 이바오로/파트리샤가정	천다니엘	4/12(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최미카엘라	천다니엘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천성배/황경옥	천다니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자녀들	윤루카/루시아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김만옥 요안나	윤루카/루시아		연 박진영 베드로	박덕희 마리아
	생 조진행 바실리오	부건화 요셉		연 박판기 세실리아	최다니엘/루시아
	생 조진행 바실리오	양인심 엘리사벳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조진행 바실리오	박경림 글라라가족		생 장민우	송아네스
	생 조바실리오 모나셀라	전데레사			
	생 황정숙 말찌나	김엘리사벳			
	생 민광국	익명			
	생 김영순 켄마	익명			
	생 최운순 루시아	익명			
	생 안나회 회원들	익명			
	생 송인숙 수산나	익명			
	생 박덕희 마리아	익명			
	생 박홍연 테클라	황정숙 말찌나			
	생 문서윤 가정	황정숙 말찌나			
	생 김영희 엘리사벳	황정숙 말찌나			
	생 천다니엘 아네스	전데레사			
	생				

<p><b>대 건 한 의 원</b>  <b>한의학박사 이 준</b>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폴킴 &amp;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amp; Associates</p>
--	--	--	---